○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달러-엔 환율 하락에 네고물량과 손절매가 더해져 하락마감

- 전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엔 환율 하락의 영향을 받고, 수출업체 네고물량과 손절매까지 유발되면서 하락마감했다.
- 달러-엔 환율이 재차 100엔대를 상향 돌파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달러화는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상단히 막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연설이 원론적인 성장 방침에 그치면서 달러-엔 환율이 재차 100엔선을 밀돌았고 달러화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은행권의 손절매까지 유발되면서 달러화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에 달러화는 전일대비 6.4원 하락한 1,115.8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스피는 Fed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기관의 매도세로 전일 대비 30.32포인트 하락한 1,959.19로 마감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3.90	1125.20	1115.00	1115.80	1119.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26.55	1163.27	1120.97	1150.53

금일 전망

달러-엔 하락과 北 리스크 해소 양상으로 1,110원대에서 하락예상

- 금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엔 하락과 북한 리스크 해소 양상으로 1,110원대에서 하락이 예상된다.
- 달러-엔 환율이 97엔대로 급락하면서 달러-원 환율 역시 무거운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서울외환시장이 "현충일"로 휴장하는 동안 해외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엔 섯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잇따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성장전략에 대해 신통치 않은 평가가 나오면서 엔저 기조가 한차례 꺾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남북간 현안 해결을 위한 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그동안 달러 매수 심리를 부추겨왔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양상이다. 이에 달러와는 이날 1,110원대 초반에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뉴욕증시는 신규실업급여 신청자수 감소 및 가계 순자산 증가 등에 따른 소비개선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06.00 ~ 1119.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6.54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불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50원하락

■ 美 다우지수 : 15040.62, +80.03p(+0.5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6.33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94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